

EPS 공급과잉속 시장 정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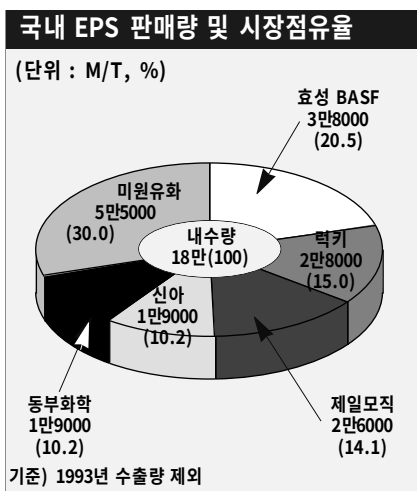
내수 19만톤 신장률 4~5% ... 가격 톤당 97만원선

극심한 공급 과잉으로 치열한 경쟁을 보이고 있는 EPS는 94년을 기점으로 4~5%의 신장률속에 안정된 시장으로 정착될 것으로 보인다

관련업계에 따르면 내수 18만톤 대비 생산능력이 30만톤에 이르는 EPS는 그동안 극심한 공급과잉으로 각사가 출혈경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수요신장률은 단열재를중심으로 서서히 회복되고 있으나 신장률은 4~5%에 머물고 있다.

따라서 국내 EPS업계는 가동률이 70%선에 머물고 있는데 향후 신증설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97년 이후에나 수급이 균형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.

또 수요의 70%에 이르는 단열재용 수요신장이 국내 EPS업계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단열재용 수요는 공장 신축 등에 활기를 보이고 있는 반면, 주택 부문에서 수요가 정체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

포장재용은 전자업계가 중국 등 노동력이 싼 지역으로 이전하는 추세에 있어 큰 수요신장을 기대할 수 없는 실정에 있다.

국내 EPS생산현황을 보면, 미원유화가 9만톤 생산능력 대비 7만톤을 생산, 내수 5만5000톤 수출 1만5000톤으로 내수 점유율이 30%에 이르고 있으며, 효성 BASF는 6만5000톤 생산능력 대비 4만4000톤을 생산, 내수 3만8000톤 수출 6500톤으로 21%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.

또 럭키는 5만톤 생산능력 대비 3만5000톤을 생산, 내수 2만5000톤 수출 8000톤으로 15%의 점유율을, 동부화학은 4만5000톤 대비 2만5000톤을 생산, 내수 1만9000톤 수출 6000톤으로 10%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.

신아는 94년1월부터 안양공장을 전주로 이전하고 4만톤의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는데 93년에는 2만6000톤을 생산, 내수 1만9000톤 수출 7000톤의 실적을 보였다.

94년에는 각 생산기업들이 93년 수준의 생산 및 판매실적이 전망되는 가운데 내수시장이 안정됨에 따라 수출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.

가격은 포장재용은 안정된 반면 단열재용은 치열한 경쟁으로 각사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내수가 가격은 톤당 95만~100만원선에 거래되고 있다.

<화학저널 1994/4/4>